

제188회 중앙종회 정기회 인사말

제188회 중앙종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가람수호와 전법교화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종단의 책무를 다하고자 진력하시는 중앙종회 의원스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 신묘년이 채 두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총무원장 취임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취임 2년에 즈음하여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공심과 원력 그리고 애중심으로 종단발전과 불교중흥을 위한 길에서 얼마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지난 시간을 반추해 봅니다.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은 대한불교조계종 통합종단이 출범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단적으로나 한국불교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가 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총무원장 임기 중에 매우 의미 있는 2012년을 맞이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1962년, 왜색불교를 청산하고 청정 수행가풍을 되살리기 위해 불교정화의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이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종단 출범이후 우리는 전통과 역사, 관습에만 매몰된 채 진취적으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그 결과 국민들의 삶과 생활 속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시기 어둡고 힘들었던 현대사 속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며 이웃들에게 정신의 의지처가 되지 못했던 과거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난 50년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50년, 희망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50년, 희망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 중앙종무기관은 2012년

을 종단중흥의 원년으로 삼고, 모든 종도들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종단중흥, 불교중흥의 길로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중앙총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제33대 집행부는 종단 중흥의 원력으로 불기2556년도 중앙총무기관 세입세출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스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200억원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분담금에 대한 의존율이 80%를 넘어서는 실정입니다. 제33대 집행부가 분담금에 대한 의존율을 낮추고 다양한 세입원을 창출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전개하는 등 갖은 노력에 분주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면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종단에 대한 사회와 종도들의 기대와 요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사회와 종도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한된 여건 속에서 제33대 집행부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지혜를 모아 불기255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단발전 4개년 계획, 핵심·주요과제, 자성과 쇄신결사, 승가복지, 승가교육 개선, 신도교육과 조직, 한국불교 세계화, 사회적 공동선 실현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6월 여수에서 개최하는 WFB 세계 불교도대회, 그리고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인 인도 룸비니 복원사업, 2012년도 개최예정인 세계종교지도자대회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한 예산도 배정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을 잘 살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종단은 총무행정 체계구축과 승가교육 개선, 지역

포교 활성화, 해외교구 설립, 불교 사회복지영역의 확대, 그리고 전통불교문화원을 비롯한 국제선센터,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등 각종 기반시설을 건립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이제 과거 50년 동안은 내적 기반과 역량을 축적해 온 과정이었다면, 미래 50년은 그동안 축적한 내적 기반과 역량을 토대로 대사회적 활동, 한국불교세계화 사업 등을 전개하여 종단중흥과 불교발전을 위해 전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제33대 집행부의 발원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불교중흥’입니다. 33대 집행부는 2012년을 종단중흥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종단발전 4개년 계획과 핵심·주요과제에 대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종단중흥과 불교발전을 위해 중앙총회를 비롯한 사부대중들과 소통의 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소통을 통해 종도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종무행정의 기반으로 삼을 것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종단중흥과 불교발전의 길에 종회의원스님들의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5(2011)년 11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